노벨평화상 수상자, 내년 서울서 모인다… 월드서밋 유치

사무총장 "한반도 평화에 긍정 영향"
각국 수상자 30명 외 1000여명 참석
내년 10월 셋째주 평화주간 지정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카트리나 자글라디아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8차 회의의 개최도시로 '서울'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시

내년에 서울에서 제18차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WSNPL)이 열린다.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관계자 등이 모여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서울시는 '2020년 제18차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카트리나 자글라디아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8차 회의의 개최도시로 '서울'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한국은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심각한 군사독재를 겪은 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큰 비극과 고난, 고통이 함께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내년 10월 수십명의 노벨평화 수상자들이 비극의 땅 한반도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한다"고 말했다.

예카트리나 자글라디아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총장은 "긴장과 반목으로 우려의 대상이었던 한반도가 최근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의 거점으로 다시 부상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냉전 종식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았다"며 "이 지역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움직임이 중요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보여주는 영감과 에너지가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노벨평화상수상자월드서밋'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약 30명을 비롯해 평화 관련 단체와 운동가, 세계 각국의 대학생과 교수진, 외신기자단 등 약 1000여명이 참여한다. 시는 이 행사 개최 기간(내년 10월 셋째 주)을 '평화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국제 콘퍼런스와 평화문화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월드서밋은 고르바초프 재단의 제안으로 199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후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201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바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은 "남북평화 문제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며 "전쟁 이후 이뤄낸 서울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문화, 국제행사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는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을 통해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린다. 아울러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서울평화포럼'을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은 이날 내년 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준비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회의 개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내년 회의에서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안보·평화 관련 국제 전문가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활동 전시회, 평화 콘서트, 비무장지대(DMZ) 등 평화 상징공간에서 문화행사 등 시민참여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박 시장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평화의 상징으로서 서울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금연거리 만드니 끊었다… 서울시 우수사례 공유

광진·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
우수 금연 정책으로 금연 도와

서울시는 '2019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광진·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의 우수 금연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고 5일 밝혔다.

광진구는 청소년의 흡연예방·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결과 청소년 금연 성공률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구로구는 관내 모든 학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주요 지점에 금연 홍보 표시판을 설치해 흡연 단속 민원을 줄이고 금연거리 홍보를 강화했다.

금천구는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금연 행복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공동주택 주민설명회를 38회 개최해 금연 행복 아파트 13개소를 지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구는 금연결심자를 위한 금연 펀드 조성 등 금연 환경 만들기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영등포구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개 공지와 5000㎡ 이상 대형 건축

구로구 금연거리 홍보 표시판. /서울시

물 사유지 내에서 흡연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여의도 증권가 9개 빌딩 담당자와 협의해 금연 거리를 지정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흡연 부스를 설치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였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에 수목을 조성해 흡연자와 보행자 간 동선을 분리,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해결했다.

한편 시는 교육청과 함께 210개 학교 통학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담배 판매 근절을 위해 서울시내 편의점 260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 판매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업체 본사에 자율정화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불꽃축제 폭죽,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농도 44㎍/㎥서 1시간 뒤 55㎍/㎥
"대기질 안 좋을땐 행사 검토 필요"

불꽃축제 때 터뜨리는 폭죽이 대기질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강 불꽃축제 폭죽 사용으로 행사장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서울 세계 불꽃축제 당시 행사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축제 초반인 오후 8시 44㎍/㎥에서 1시간 뒤 55㎍/㎥로 올라 최고 농도를 기록했다. 이후 오후 10시 54㎍/㎥, 11시 11㎍/㎥, 12시 5㎍/㎥로 내려갔다.

미세먼지(PM-10) 농도는 오후 8시 56㎍/㎥에서 10시 80㎍/㎥까지 치솟았다가 11시 24㎍/㎥, 12시 9㎍/㎥로 낮아졌다.

대기질은 축제 시작 전, 중간, 후로 나눠 측정했다. 폭죽이 터지는 한강을 중심으로 행사장 근거리는 여의도(반경 1km)와 이촌 한강공원(반경 2km) 두 지점에 이동 측정 차량을 각각 설치했고 주변 지역에 위치한 영등포구와 용산구, 동작구의 도시대기측정소 농도를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19'가 지난 10월 5일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여의도 63빌딩 앞과 이촌지구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연우 기자

관찰했다.

서울연구원은 "불꽃축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환경과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질을 조사한 결과 행사장 주변 국소적인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했다"며 "그러나 당일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단시간에 기존의 대기질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인근 주거지역에는 농도 변화가 없어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6~75㎍/㎥, 미세먼지 농도가 81~100㎍/㎥이면 '나쁨' 수준에 해당한다. 행사 당시 풍속인 초속 4.2m는 당일 하루 평균 풍속인 초속 2.9m보다 높아 대기 확산이 원활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는 대기질이 좋은 상황에서 개최돼 불꽃축제로 인한 영향이 행사장 일부에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기질이 안 좋을 때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사 개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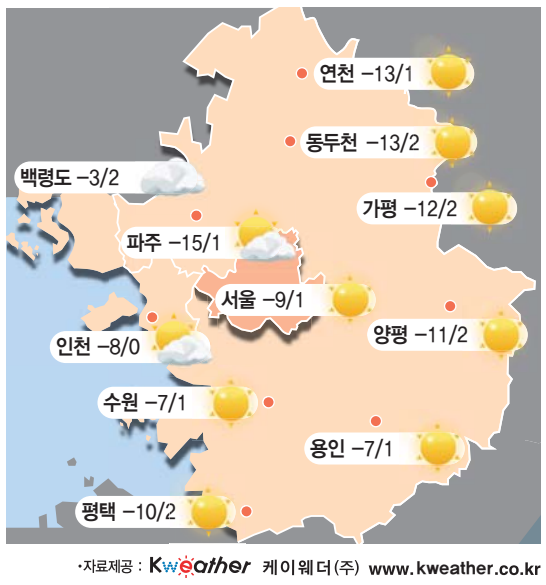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32 | 해짐 / 17:13

12월
6일 (金)
음력 : 11월 10일

수도권 날씨
-9 ~ 1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IoT로 파열사고 예방… 서울기술硏, 열수송관 관리기술 개발

서울기술연구원은 사물인터넷(IoT)으로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이 이번에 개발한 '첨단 IoT 기반 열수송관 유지관리 기술'은 손상 지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 정보를 무선 통신망을 통해 유지 관리자에게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췄다.

그동안 열수송관 유지관리는 작업자가 지상에서 GPR(지표투과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열수송관 전체를 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고양시 백석동과 서울시 목동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수송관의 관리 및 파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 11월 서울에너지공사 중계-신내지구 신설 열수송관(80m)에 해당 기술을 적용했다. 5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실증작업을 거쳐 내년 서울에너지공사가 신설하는 열수송관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